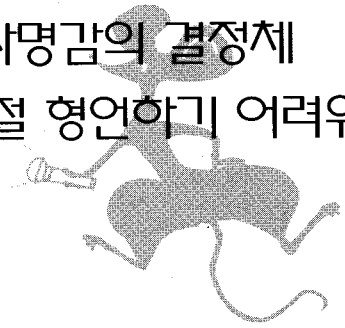




‘선봉’의 受胎!

국내 농약시장 사수위한 사명감의 결정체
『KH-502』受胎까지 우여곡절 형언하기 어려워



조 부 언
생보화학(주) 연구소

1996년 6월 12일,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마치 산고를 심히 하던 임신부가 막 해산을 하였을 때의 느낌일까, 다 이룬것 같은 환상에 빠져 들었다.

사내(社內) 날고 뛰는 작명가들의 합심으로 얻은 ‘선봉’이란 이름으로, 아홉 딸 뒤에 얻은 10대 독자 외아들을 얻은 심정이었다. 아무튼 잘 생겼는지 못 생겼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잘 클는지, 훌륭한 동량으로 자랄 녀석인지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얻었다는 만족감에 젖어 있을 뿐이었다. 『KH-502』가 농림수산부에 출생신고를 마친 날이었다.

먼저 이 지면을 빌어 제발 순산만이라도 하게 해달라며 함께 기도하고 동분서주했던 본사의 이 차장님과 관계자 모든 은인들께 실무자의 한사람으로 회사를 대신하여 감사드리고 싶다. 주안상 차려 놓고 소주라도 한잔 하며 드려야 되는 인사이나 이 자식 잘켜서 부모 봉양 잘 하거든 약주 한잔 듬뿍 대접해 올리기로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키워온 과정을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저 자신이 독자적으로 느끼고 경험한 바를 2회에 걸쳐 두서없이 말씀드리고자 하니 부담없는 방담으로 보아주시길 기대해 본다.

'성보' 라는 妊婦에 受胎된

『KH-502』

1989년 12월 1일 한국화학연구소(소장 채영복)에서는 신물질 개발에 관한 대 기업 Project수행 결과 발표회가 있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1987년 물질 특허 제도가 수행된 이래 국가출연 연구소 및 민간 기업체가 독자적 연구비나 국가지원 연구비 등으로 각종 신물질 연구를 시작했고 농약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바람직한 기업주 및 연구자들이 신물질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던 시기였다.

또 이대로 농약 산업을 방치하여 두면 언젠가는 외국의 농약 Major들에게 우리 나라의 농약 시장이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긴장감으로 오로지 신농약 창출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던 때였다.

성보화학에서도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께서 이러한 현실을 직관하고 영세한 사세에도 불구하고 신물질 창출에 연구비의 50%정도를 할애하여 연구에 매진해오던 상황이었다. 물론 일부 농약회사에서는 지금과 같이 그냥 외국 농약 수입해다가 Fomulation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속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어찌면 성보화학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앞선 개척적인 회사라는 생각에 매우 자랑스럽기도 하다.

그날 유성 소재 리베라 호텔 회



농약산업을 방치하여 두면 언젠가는 외국의 농약 Major들에게 우리나라의 농약시장이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긴장감으로 농약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기업주 및 연구자들이 신물질 창출에 온갖 노력을 다 하였다.

의실에서 발표된 Project는 김대황박사의 옥수수 밭에 효능이 있는 Preemergency Herbicide와 황기준 박사의 배추밭의 배추좀나방에 탁월한 KH-502, 김완주 박노상 유성은 지옥표 박사님들의 의약품 개발에 대하여 발표가 있었다. 성보에서는 윤재천 사장님과 박성석 전무님(현재 퇴직) 그리고 본인이 참석하여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성보로서는 의약품 개발에는 한계성에 다다르게 되었고 농약에 관한 2개의 Project 중 김대황 박사의 Herbicide는 KH-502보다 진척도가 미미하였으며 KH-502는 성보의 여건상

한 번 해볼만한 Project로 결론짓게 되었다.

당시 KH-502에 관하여 알려진 자료로는 일본화학의 Field test자료가 가장 신빙성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아게오'의 600평 포장에 50개 Pot에서 시험한 결과 우수하다는 결론이었고 일본화학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이보다 더좋은 배추좀나방약은 있을 수 없다며 하루빨리 농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척시키자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일본내 18개 지역에서의 Official test 사진, 90년에는 동남아에 현지 Field test를 계획중이라는점, 말레이시아에 시료를



가려진 진실 (I)

수송한다는 정보, Shell의 Market 정보는 7,500만\$/년 등등 정보로서는 흥분하지 않을수 없는 정보들이었다. 결국 우리는 공동연구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계약서를 상호 검토하던중 우리손으로 국산 1호 신농약을 탄생시켜보자는 채영복 소장님과 황기준박사님의 높은 사명감과 함께 공식적인 모든 자료를 위한 시험은 화학연구소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정보는 합성 Process 개발과 등록 절차만 책임지면 된다는 사실에 솔직히 황재감마저 들기도 했다. 어쩌면 그 이후의 과정이 그렇게 험난하고 Risk가 첩첩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야말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줄 몰랐던 우리의 저돌성은 발휘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모든 과정을 아는 사람이 옆에서 다소의 문제점만이라도 지적해 주었더라면 오늘의 이 기분은 훨씬 반감되었을 것이다. 또한 과정을 아는 이가 그때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았더라면 실소를 금할 수 없었을것 같아 돌이켜보면 얼굴 화끈함도 느끼게 된다.

더군다나 KH-502는 한국에서는 한농의 1개사가, 일본에서는 마루베니 상사, 우베, 일본농약, 미쓰비시, 일본 특수농약 등이 검토후 포기한 품목이었으니 정보화학에서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모하고 어리석은 결정이였는지도 모른다.

아울러 91년 1월말, 그동안 일본화학에서 3,000만푼을 들여 수행한 실험결과를 검토한 결과 Spectrum이 좁다는 이유로 포기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받은후에 정보에서 그것도 본인이 맡아서 출산해 보겠다고 결정을 하였으니 그 결과는 두려우나 시간이 흐른후 평가되리라 생각된다. 하여튼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 태어나기도 전에 『KH-502』라는 가명을 가지고 1991년 9월 21일 정보라는 임부(妊婦)에 수태(受胎) 되었다.

‘기밀 탈취죄’의 진상

95년경으로 기억된다. 느닷없이 대전 지방 검찰청으로 부터 출두 통보서가 날아왔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나 죄지은 사실도 없는데 검찰청에서 출두하라니 온몸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쿵닥거리며 팬스리 불안하고 밥맛이 없어지는 등 정신없이 며칠이 지

나갔다. 그후 화학연구소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화학연구소의 K모 박사와 결탁하여 국책과제로 연구한 Project의 결과를 훔쳐 C모씨의 고소로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물질 개발한다고 부지런히 화학연구소를 드나들며 동분서주했던 지난날을 되돌아 보며 내가 혹시나 정말 훔쳐온 것이 없는지 조목조목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받을만한 일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죄라면 먼길 찾아 갔으니 안면 많고 정들은 P박사님, H박사님, L박사님, Y박사님, C박사님 등과 그때 그때 편한대로 한번은 내가 사고 한번은 그분들이 사고 하는 등의 정으로 대포한 잔 마신것이 기밀유출을 위한 대가성 잡대로 미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것이려면 차라리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색시며 진수성찬 차리고 비싼 수입양주로 할 것이지 왜 대포를 마셨겠는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하여튼 시간이 흘러 검찰청 대전 지청에 출두, 죄인 아닌 죄인이 강도범, 살인범, 성추행범 등 잡다한 죄인들이 심문을 받은 그 자리에 앉아서 2시간여 동안 참



'선봉'이 탄생되던날
마치 산고를 심히
하던 임신부가 막
해산을 하였을 때의
느낌이랄까.
다 이룬것 같은
환상에 빠져 들었다.

고인 진술이란 명분으로 심문을 받았다. 지금 생각해도 불쾌하고 화가난다. 수사관의 태도는 어떠한가? 심증이 가는 살인 용의자를 앞에 앉혀 놓고 확증을 얻으려는 듯 비슷비슷한 말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심문했고 서투른 실력으로 타이프라이터를 두드렸다.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로 감정을 자극하고 달래기도 하며 때로는 약간의 공포를 느끼게도 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화가나서 대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의 대답을 어떻게 기록할지에 대한 의심가는 부분은 확인하여 기록하게 하는 등 지루한 심문을 마친후 서명을 했는지 손도장을 찍었는지 기억

이 확실치 않으나 최종 확인을 하고 검찰청 문을 나섰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문을 나서는 순간 태양의 빛이 알뜰도록 나를 내려쬐이며 마치 사실을 확실히 밝히라고 말하는 듯한 기분 나쁜 느낌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을 만든자들이 밉고 야속했으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봉변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허망한 생각이 들었다. 또한 기껏 농약산업 발전을 위해 국산 신농약 하나 개발해 보자며 밥먹으면 따라다니던 결과가 고작 나 스스로를 이렇게 형편없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에 화학연구소를 향해 질주하는 차속에서도 인생의 허무와 서글픔

이 배어 나왔다. 그 일이 있고난 후 주간지 기자가 그 사건에 관련 취재한다고 하여 부담없이 응한바 있다.

그런데 며칠 지나 이모 국회의원 비서실에서 본건에 대해 출두하여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출두치 않으면 국회 무순법 몇조에 의해 처벌 받으니 유념하라는 내용과 함께 국회의장 출두서를 동봉해왔다. 세상물정 모르는 나는 허겁지겁 자료를 준비하여 출두하였고 비서와 기자의 이런저런 질문에 응답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었는지 거짓말 하지 말라는 등 모욕적인 처우까지도 받았다. 답답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평소 안면이 있던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정식 국회의장 직인이 없는 출두 통보서에는 응하지 않아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조언에 따라 일절 응하지 않았다. 한편 화학연구소에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등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노력하였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상고되어 무고인지 명예훼손인지 고소자의 참패로 끝난 하나의 해프닝이었으며 고소인 C모 박사는 영원히 화학계에서 추방된 것으로 막을 내렸다. <계속> **농약정보**